

10-02

통권 6호



환경-HRI



대한민국 경제 행복 지수

2010년 7월 9일



現代經濟研究院
HYUNDAI RESEARCH INSTITUTE

■ HRI 대한민국 경제 행복 지수
- 제 6회 조사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경제적 행복지수의 개요	1
2. 경제적 행복지수 조사 결과	6
3. 기획 조사 결과	22
4. 경제적 행복지수의 종합적 시사점	28

○ 경제적 행복지수 종합 평가

- 2009년 6월(제 4회)부터 2회 연속 상승했던 경제적 행복지수가 지난 조사보다 0.3p 하락하면서 42.2를 기록함. 그러나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국민들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경제적 행복지수의 구성 요소의 각 항목별 수치들은 경제적 우위와 전반적 행복감만 소폭 상승하였고 경제적 안정, 발전, 평등, 불안 요인들은 전반적으로 하락. 특히 일자리, 소득, 노후 소득과 관련된 경제적 안정 요인이 더 하락한 모습을 보임
- 남성의 행복지수는 39.6으로 전기대비 3.2p 하락한 반면, 여성은 44.6으로 2회 조사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
 - 남성의 행복지수는 지난 2009년 12월(제 5회) 조사에서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일시 상승했다가 일자리 문제, 소득 정체 등으로 하락하여 원상회복된 것으로 판단

○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

- 2010년 6월말 현재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충남에 거주하는 대졸 이상의 30대 여성이면서 고소득의 전문직이나 주부

○ 부문별 경제적 행복지수

- 지역별 : 전국 16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인 소폭 하락세 속에서 충남(45.9)이 가장 높았음
 - 지역별 평균 경제적 행복지수가 2009년 하반기 42.5에서 2010년 상반기 42.2로 0.3p 하락하였음
 - 지역별 경제적 행복지수는 충남 지역에 소재한 IT 산업의 경기 회복과 세종시 불확실성 요인의 해소로 인해 충남, 대전권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 또한, 자동차 수출 산업과 관련된 울산(45.6)과 경제 회복 기조로 비교적 경제적 안정성이 높은 서울(45.6)의 행복지수도 상승
- 직업별 : 전문직의 행복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주부들의 경제적 행복지수도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공무원은 큰 폭으로 하락
 - 직업별 추이를 보면, 전문직과 주부의 경제적 만족도가 타 직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 침체기에 상대적인 직업 안정성이 부각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던 공무원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크게 떨어짐

- 그러나, 전반적인 직업군에서 경제적 행복지수가 소폭 상승하였고 미래 경제 행복 예측 지수도 전문직(32.8p), 기타/무직(24.8p), 직장인(12p)에서 크게 상승
- 연령별 : 30대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으나, 전기대비로는 젊은 층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하락한 것이 특징적임
 - 연령별로는, 30대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음. 그러나 20대와 30대의 행복지수는 전기대비 하락한 반면 60대 이상은 꾸준히 상승
 - 젊은 층의 경제적 행복감이 하락한 원인은 경기 회복 기조에도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에 있어서도 3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대 이상의 전반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일수록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임
- 소득 및 자산별 : 부동산 경기 하락과 증시 조정 등으로 5억 원 이상 자산가의 행복지수 모두 하락
 - 1억 원 이상 고소득자(74.1)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으나 4천만 원 미만 저소득자의 행복감도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산별로는 부동산 경기 하락과 증시 조정 등으로 5억 원 이상 자산가의 경제적 행복지수와 미래 경제적 예측 지수가 모두 하락
- 학력별 : 대학 졸업 이상 고학력자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높지만 전기대비로는 모두 하락
 -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높지만 대졸자(43.9)와 대학원졸(52.5) 모두 전기대비 각각 2.3p, 0.2p 하락
 - 특히, 대학원 졸업자의 경제적 행복지수와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가 모두 하락하였는데, 이는 고학력자의 빈곤화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혼인상태별 : 기혼자의 행복감은 꾸준히 상승했으나, 미혼자, 이혼자, 사별자는 모두 행복지수가 하락
 - 미혼자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43.6으로 가장 높았으나 전기대비로는 4.5p 하락한 반면, 기혼자는 42.1로 꾸준한 상승 추세를 보임

○ 기획조사 결과

- 최근 실물경제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약 90%가 실질적인 경기회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원인은 일자리와 소득 감소, 부동산·주식 등의 자산 가치 하락,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추정
 - 또한, 실질적 경기 회복은 2011년 하반기 이후로 보는 시각이 우세
- 유로존 재정위기 지속에 따른 제 2차 금융위기 가능성과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이 2010년 하반기 경기 회복의 불안요인
 - 특히, 남북관계 경색은 남북경협에 부정적 영향은 물론 성장률 하락으로 연결되어 경제 회복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국민이 약 90%에 달함

○ 정책적 시사점

- 첫째, 고학력 청년층의 행복감이 크게 떨어진 것을 감안하여 청년층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
 - 청년고용 비중이 높은 디지털 콘텐츠 산업 등 신성장 분야의 새로운 사업 기회와 신규 일자리 창출력을 높여야 함
- 둘째, 지표 경기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함에 따라 서민·중산층에 대한 배려와 부동산 시장 연착륙 대책이 필요
 - 특히, 출구전략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상환 능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
- 셋째, 강원 지역의 행복감 하락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여 인도적·비정치적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국제공조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 넷째, 공무원의 행복감 하락을 감안하여 최근 발표한 「내년 공무원 급여 인상」 등의 조치는 시의 적절한 것으로 판단

HRI 대한민국 경제 행복지수

- 제 6회 조사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1. 경제적 행복지수의 개요

○ 경제적 행복지수의 정의

- 경제적 행복지수란 개인이 경제적 요인과 관련하여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에 대한 평가로서 경제상태, 의식, 외부 요건 등에 의해 변화되는 것으로 정의함
-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행복지수를 EHI(Economic Happiness Index)로 명명

○ 경제적 행복지수 작성의 목적

- 경제적 행복의 의미를 정의하고, 우리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적 행복지수를 일정주기별로 반복적으로 측정하여 발표함으로써 관련된 경제·사회 정치적 의사결정의 의미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 2007년 12월부터 반기별로 조사 발표

○ 경제적 행복지수의 구성 요소

-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행복을 구성하는 5개 요소는 ①경제적 안정 ②경제적 우위③경제적 발전 ④경제적 평등 ⑤경제적 불안이며, 각각의 요소를 지수화 한 후, 종합하여 경제적 행복지수를 산출함

< 경제적 행복 구성 요소 >

하위 지수	이론 및 근거	내용
경제적 안정 지수	Maslow(1934) Need theory	어느 일정 수준의 경제적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한 다음 단계의 욕구로 진행되지 않음
경제적 우위 지수	Frank Robert(1986)	사람은 그가 속한 사회에서의 상대적인 경제적 지위에 따라 행복을 느끼는 수준이 다름
경제적 발전 지수	Daniel Kahneman(1979) Prospect theory	경제적 발전 가능성이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경제적 평등 지수	Veenhoven(2006) Inequality-Adjusted Happiness	개인의 경제적 행복은 소속 집단에서의 경제적 불평등도에 의해 차이를 나타냄
경제적 불안 지수	Okun(1976) Misery Index	물가, 실업률 등 외부 요인이 개인을 불안하게 하는 작용을 함

○ 경제적 행복지수의 계산 방식

- 경제적 행복지수(EHI)는 '5개 하위지수' 와 '전반적 행복감' 의 종합으로 이루어짐
 - 5개 요소 하위지수는 각각 긍정 100점, 중립 50점, 부정 0점으로 하여 평균을 낸 점수임
 - 전반적 행복감은 경제적 행복의 정도를 직접 물어서, 경제적으로 행복하다 100점, 보통이다 50점, 경제적으로 행복하지 않다 0점으로 하여 평균을 낸

- 경제적 행복지수는 최소 0점에서 최대 100점, 중간값 50점임

$$EHI = \frac{\frac{\textcircled{1} + \textcircled{2} + \textcircled{3} + \textcircled{4} + \textcircled{5}}{5} + \textcircled{6}}{2}$$

○ (경제적 행복 예측) 미래 경제적 행복의 변화에 대하여, 즉 경제적 행복 예측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

- 경제적 행복지수와는 별도로 경제적 행복의 변화에 대하여 예측해 보고자 독립된 별도 문항을 측정하여 지수화 하고자 함
 - ‘나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보다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에 대하여 질문하여, ‘그렇다’와 ‘아니다’의 비율의 차에 100을 더하여, 100 이상이면 경제적 행복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임 (BSI 산출방식과 동일)
 - 예로써 ‘예’가 60% 이고 ‘아니오’가 40% 이면 $60 - 40 = 20$ 에 100을 더하여 120이 지수가 됨
 - 경제적 행복예측은 최소 0점에서 최대 200점, 중간값 100점임

○ 경제적 행복지수의 설문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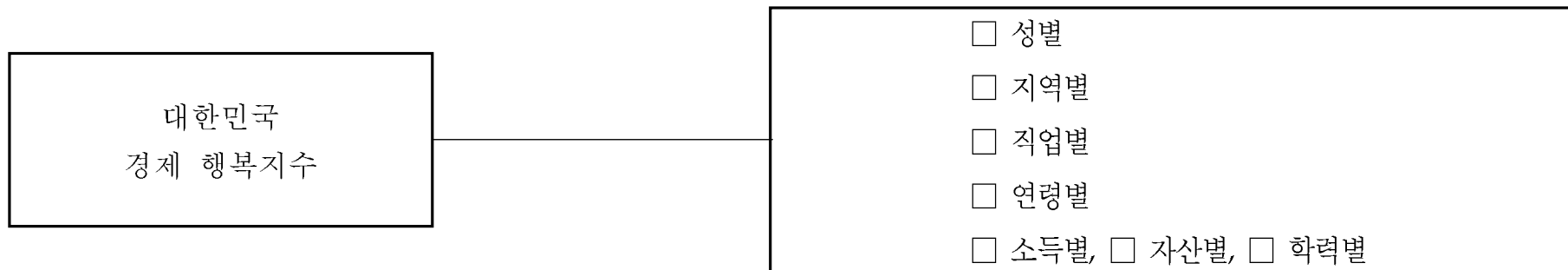
구분		질문	답변
경제적 행복 구성 요소	경제적 안정	나(또는 귀댁의 가장)의 일자리와 소득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지금의 추세라면 내 노후의 경제상황은 안정적일 것 같다.	(1)그렇다 (2)반반이다 (3)아니다
	경제적 우위	나는 내 주변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나은 편이다 최근 6개월간 경제적 열등감으로 마음 상한 경험이 있다.	
	경제적 발전	나의 소득, 자산 등 경제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나의 경제적인 생활수준은 나아지고 있다.	
	경제적 평등	현재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앞으로 우리사회는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평등해 질 것이다.	
	경제적 불안	내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나를 불안하게 한다. 내가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나를 불안하게 한다.	
전반적 행복감		나는 경제적으로 행복하다.	(1)예 (2)아니오
경제적 행복 예측		나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보다 행복해 질 것으로 생각한다.	

○ 조사의 개요

- 조사 기간 : 2010년 6월 1일 ~ 6월 14일(13일간)
- 조사 주최 : 한국경제신문, 현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
- 조사 방식 : 지역*별 최소 할당과 인구 비례에 의한 배분에 의하여 전화설문을 통해 전국 1,031개 샘플을 수집
- 조사 대상 : 전국의 20세 이상의 경제활동 중인 성인 남녀 (학생 제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경북	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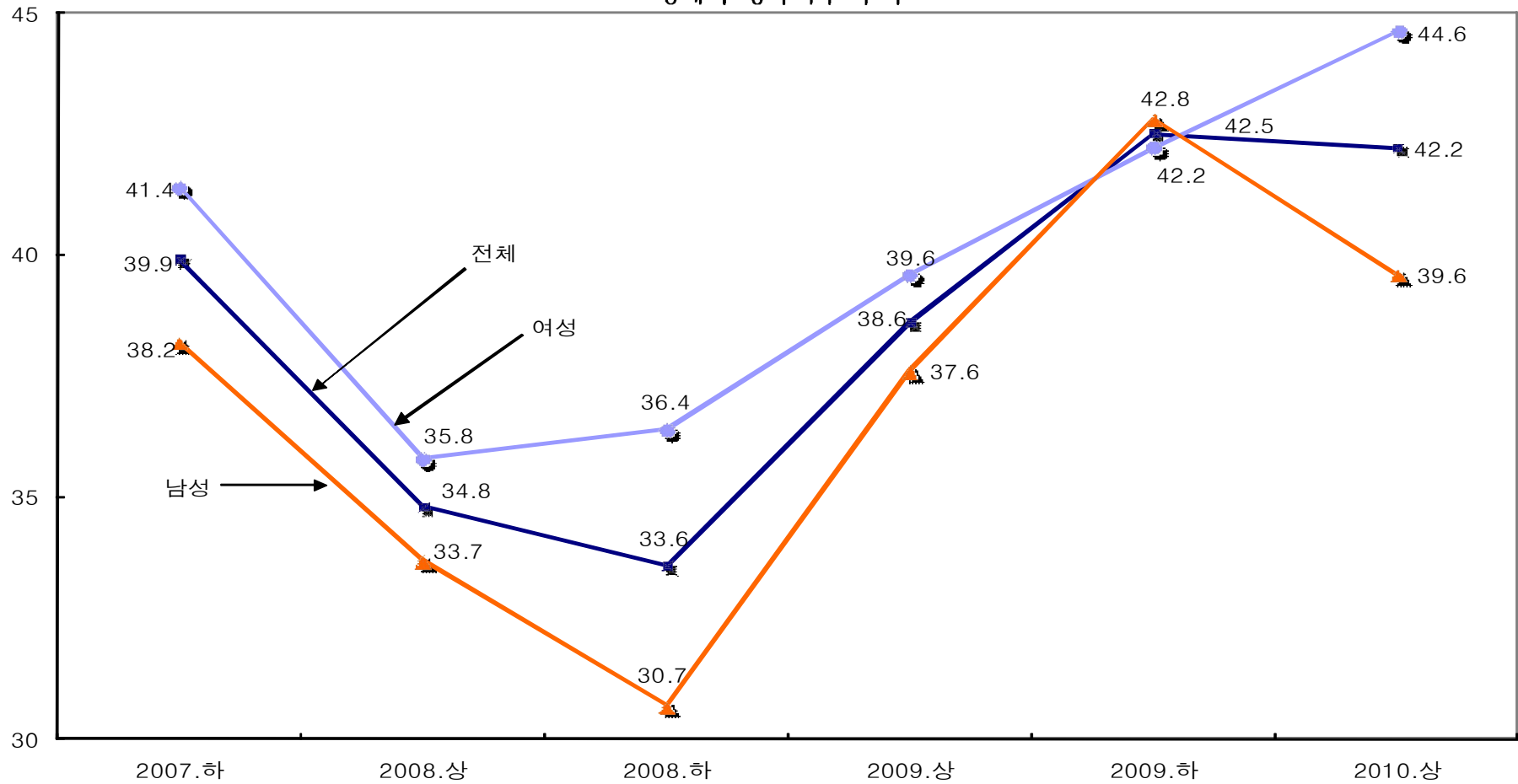
○ 결과 분석



2. 행복지수 조사 결과

- (종합평가) 2009년 상반기부터 2회 연속 상승했던 경제적 행복지수가 유로존 재정위기와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우리 국민들의 빠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소폭 하락
 - 2007년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9년 상반기부터 안정화되면서 국내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경제적 행복지수는 2008년 하반기 33.6에서 2009년 하반기에는 42.5로 2회 연속 상승하면서 3회(2008년 하반기) 조사보다 8.9p 상승하였으나 2010년 상반기에는 42.2로 2009년 하반기(5회) 조사보다 0.3p 하락
 - 이는 2010년 초부터 대두된 두바이 경제위기, 유로존 재정위기 등 대외적 요인과 국내 외환시장의 환율 불안, 천안함 사건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 등 대내적 요인들로 국내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향후, 부동산 시장 경착륙 가능성, 출구전략에 따른 금리인상 등으로 2009년 4/4분기부터 가파른 GDP성장률 회복세가 재차 큰 폭으로 하락하는 더블딥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남녀별로 보면 여성의 행복지수는 2008년 상반기 조사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며 2010년 상반기 44.6으로 전기대비 2.4p 상승하였으나, 5회 조사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던 남성은 2.6p 하락하면서 여성과의 격차가 확대됨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최근 대외적 경제 불안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전기대비 2.2p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미래 경제 사정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은 유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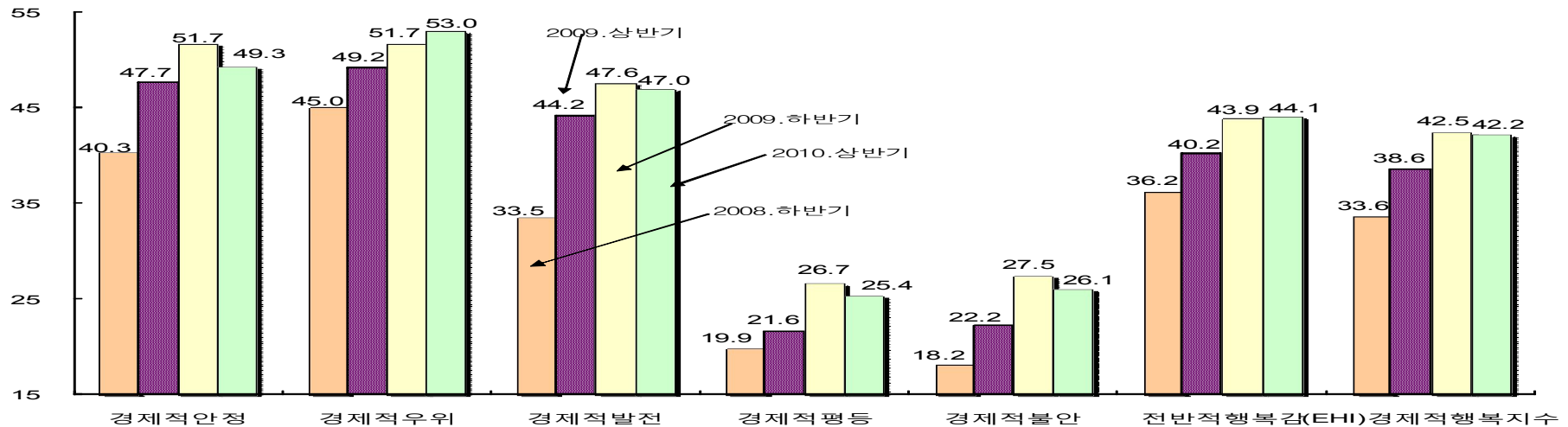
< 경제적 행복지수 추이 >



○ (항목별) 경제적 행복지수가 2009년 하반기보다 소폭 하락하면서 구성 요소의 각 항목별 수치들도 대체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항목별로 경제적 우위, 전반적 행복감은 상승하였으나 경제적 안정, 발전, 평등, 불안 요인들은 전반적으로 하락

- 우선, 경제적 행복지수가 5회 조사 보다 0.3p 하락하며 42.2로 기록함. 각 항목별로는 경제적 우위 1.3p, 전반적 행복감이 0.2p 상승한 반면, 경제적 안정 2.4p, 경제적 발전 0.6p, 경제적 평등 1.3p, 경제적 불안은 1.4p 하락하면서 경제적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일자리, 소득, 노후 소득 등과 관련된 경제적 안정 요인이 더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임

< 항목별 경제적 행복 지수 비교 >



- (경제적 행복 예측) 2009년 하반기에 큰 폭으로 상승했던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은 2010년 상반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유지
- 미래의 경제적 행복 예측은 전기대비 2.2p 상승한 146.4로 미래에 경제적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보임¹⁾
 - 2009년 하반기 조사에서 경제적 행복지수는 42.5로 전기대비 3.9p 상승하였고, 미래의 경제적 행복에 대한 예측 역시 15.4p 동반 상승한 144.2을 기록하여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시각이 높아짐
 - 이어, 2010년 상반기 조사에서 경제적 행복지수는 전기대비 0.3p 하락한 42.2를 기록했으나 미래의 경제적 행복에 대한 예측 지수는 2.2p 상승하며 146.4를 기록하여 향후 경제적 행복감은 현재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
 - 2010년 상반기 두바이 경제위기, 유로존 재정위기 등 대외 경제 불안요인과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신규 일자리 창출 미흡 등의 대내적 요인으로 경제적 행복감은 소폭 하락
 - 그러나,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국내 실물경제 지표의 개선으로 미래에 경제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희망적 기대감을 살릴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추이 >

	2007. 하반기	2008. 상반기	2008. 하반기	2009. 상반기	2009. 하반기	2010. 상반기
남 성	135.1	115.0	121.6	127.8	139.8	142.8
여 성	137.0	131.1	129.2	129.6	148.2	149.6
전 체	136.0	123.1	125.6	128.8	144.2	146.4

1) 경제적 행복 예측은 200점 만점으로, 100점을 기준으로 100보다 커질수록 미래의 경제적 행복을 낙관적으로 예측하고 있음으로 해석함

○ (지역별) 전국 16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하반기대비 전반적인 하락세 속에서 충남이 45.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별 평균 경제적 행복지수가 2009년 하반기 42.5에서 2010년 상반기 42.2로 0.3p 하락

· 서울, 대구, 대전, 울산, 경기, 충남, 전북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전반기보다 소폭 상승하였고, 9개 시·도 지역은 하락

- IT 경기 회복과 세종시 불확실성 요인 해소로 인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충남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충남 지역에 소재한 IT 산업 지역의 경기 회복과 세종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2010년 상반기 충남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45.9로 1위(49.1)를 차지하였고, 대전도 45.6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

- 자동차 수출 산업과 관련된 울산의 행복지수가 높았고 경제 회복 기조로 비교적 경제 안정성이 높았던 서울의 행복지수도 상승세를 보인 반면, 강원과 제주 등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큰 폭으로 하락

· 울산과 서울이 45.6으로 공동 2위를 기록한 반면, 지난 조사에서 상위를 기록했던 강원(36.6)과 제주(39.5)는 관광 서비스업의 계절적 요인으로 행복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 경제 행복지수가 높은 지역은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도 전반적으로 높아 미래 경제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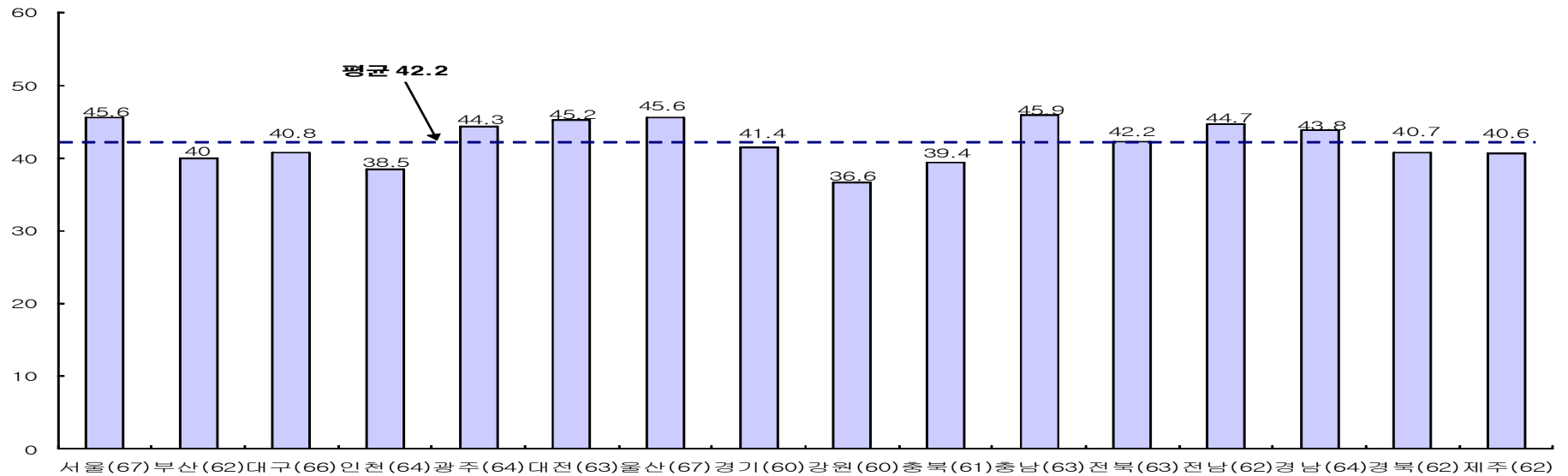
· 서울이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조사에서 163.0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행복지수가 높았던 충남도 154.8로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나타냄

· 반면, 울산(140.2), 대전(131.2) 등은 현재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높으나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 또한, 경제적 행복지수가 낮은 경기(159.4), 경북(151.6), 제주(147.6)는 미래 경제적 행복에 대한 예측은 평균보다 높아 긍정적으로 전망

< 지역별 경제적 행복지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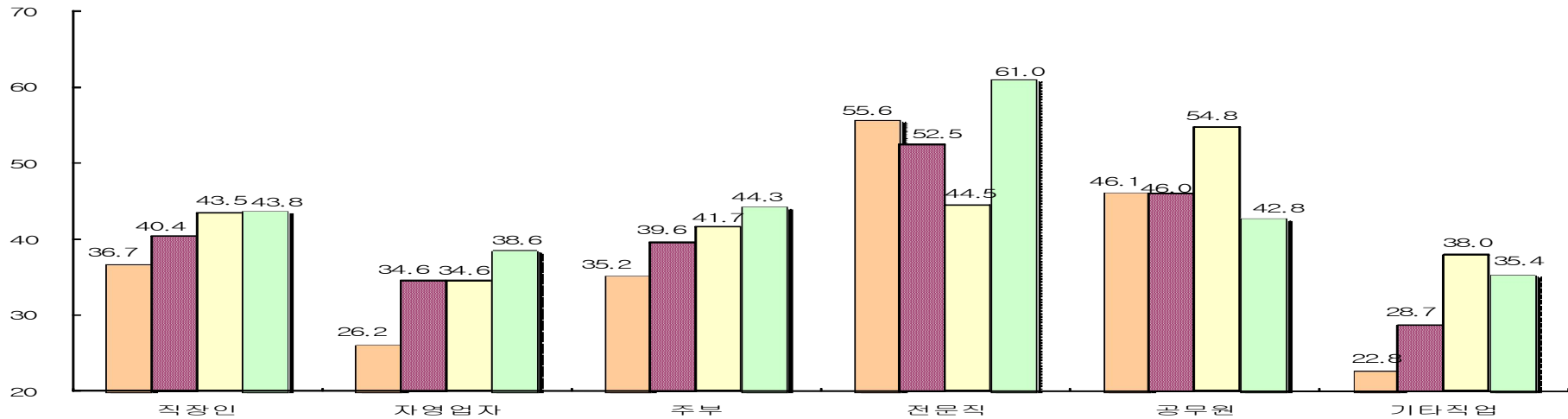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경북	제주
경제적 안정	56.7	45.2	44.6	47.2	58.2	51.6	54.1	47.1	43.8	45.1	55.2	45.2	47.1	53.5	46.8	45.2
경제적 우위	57.8	49.2	48.1	43.8	55.1	54.4	55.2	50.8	48.8	51.3	54.0	52.4	55.7	58.6	55.6	56.9
경제적 발전	50.4	48.8	39.8	48.4	50.4	43.7	51.1	42.9	43.8	41.8	45.2	54.8	44.4	42.2	52.4	50.8
경제적 평등	26.1	29.0	34.8	19.0	9.8	31.9	29.2	27.3	25.4	22.0	32.1	25.4	20.5	24.2	20.6	29.9
경제적 불안	29.5	26.2	26.1	30.1	23.4	34.5	25.0	30.1	16.7	25.4	26.6	30.4	21.7	29.3	17.7	27.4
전반적 행복감	47.0	40.3	42.4	39.8	49.2	46.8	45.5	48.3	35.8	40.2	49.2	42.1	51.6	45.3	42.7	39.5
경제적 행복지수	45.6	40.0	40.8	38.5	44.3	45.2	45.6	41.4	36.6	39.4	45.9	42.2	44.7	43.8	40.7	40.6
지역별 순위	2	13	10	15	6	4	2	9	16	14	1	8	5	7	11	12
경제적 행복 예측	163.0	138.8	129.2	134.4	158.0	131.2	140.2	159.4	145.8	137.8	154.8	158.0	152.6	148.4	151.6	147.6



- (직업별) 전문직의 행복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주부들의 경제적 행복지수도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 반면, 경기 침체에 큰 폭으로 상승했던 공무원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
 - 직업별로 보면, 전문직과 주부의 경제적 만족도가 타 직업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장 경제적 행복감이 높은 직업군은 전문직으로 전기대비로 16.5p 상승한 65.4를 기록하였으나, 5회 조사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던 공무원은 12.0p 하락하며 경제적 행복감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은 전문직이 전기대비 32.8p, 무직군도 24.8p 상승하면서 이 두 직군은 경기 회복에 따라 미래 경제 상황을 보다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대부분 직업군에서 경제적 행복지수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5회 조사에서 크게 상승했던 공무원은 큰 폭으로 하락
 - 전문직, 자영업자, 주부, 직장인 순으로 경제적 행복지수가 전기대비 각각 16.5p, 4.0p, 2.6p, 0.3p 상승한 반면, 공무원과 기타/무직군은 12.0p, 2.0p 하락함
 - 그러나, 2010년 하반기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면서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주부와 공무원을 제외하고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특히, 전문직 32.8p, 기타/무직 24.8p, 직장인 12.0p가 상승하면서 이들은 비교적 희망적이고 낙관적으로 경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직업²⁾별 경제적 행복지수 >

	직장인		자영업자		주부		전문직		공무원		기타/무직	
경제적 안정	50.0	▽4.3	42.8	5.7	53.3	3.9	69.2	7.8	60.7	▽14.1	36.1	▽1.2
경제적 우위	53.5	0.1	50.0	5.4	54.2	3.5	75.0	18.2	54.8	▽7.7	49.5	7.7
경제적 발전	56.1	3.6	42.5	6.5	43.9	2.7	63.5	4.4	48.3	▽20.0	28.8	2.5
경제적 평등	22.7	▽3.6	28.3	3.9	27.2	1.4	34.6	11.9	19.6	▽8.8	28.7	▽10.1
경제적 불안	27.5	0.6	24.5	▽1.5	26.3	1.2	40.4	10.9	25.6	▽10.5	23.2	▽4.8
전반적 행복감	45.2	1.1	40.0	5.1	47.6	2.2	65.4	22.2	44.9	▽10.7	36.0	▽6.2
경제적 행복지수	43.8	0.3	38.6	4.0	44.3	2.6	61.0	16.5	42.8	▽12.0	35.4	▽2.0
경제적 행복 예측	155.6	12.0	144.4	4.8	143.8	▽4.8	169.2	32.8	134.0	▽29.2	132.0	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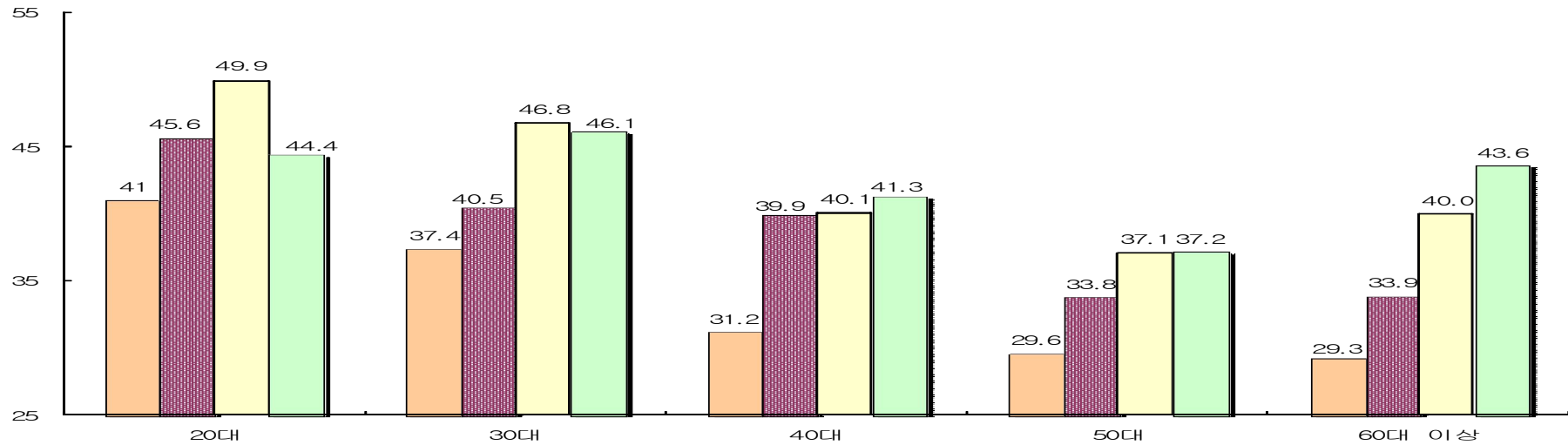
2) 각 항목의 우측 칸은 2009년 상반기 조사와의 격차를 나타냄

○ (연령별) 30대 이하 젊은 층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하락

- 연령대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경우 20~30대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하락하였으나, 60대 이상은 꾸준히 상승함
 - 경제적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던 20대의 행복지수가 금번 조사에서 5.5p 하락하면서 30대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아짐. 20대와 30대의 행복지수는 44.4, 46.1로 전기대비 5.5p, 0.7p 하락한 반면, 40~60대에서는 각각 전기대비 1.2p, 0.1p, 3.6p 상승
 - 20대의 경제적 행복감이 하락한 원인은 경기 회복 기조에도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행복감이 하락. 실제로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두배 수준으로 높은 상황임
 - 60대 이상은 고령연금, 노령장기요양보험 등 노인 복지 서비스의 개선으로 체감 행복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은 30대가 가장 높았고, 40대 이상에서의 전반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일수록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30대의 경우 전기대비 6.4p 상승한 163.8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이 128.0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전기대비로는 3.2p 상승하며 미래의 경제적 행복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20대는 경제적 행복지수(▽5.5)와 미래 예측 지수(▽8.0)가 모두 하락하면서 미래 경제 상황에도 부정적인 시각이 반영되었고 30대 이상에서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향후 경기회복에 따라 경제적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연령별 경제적 행복지수 >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경제적 안정	50.2	▽7.7	54.4	▽3.0	51.1	▽0.5	41.3	▽6.8	49.8	12.1
경제적 우위	53.4	▽4.7	54.6	▽0.8	53.0	3.4	49.8	2.0	55.5	7.3
경제적 발전	61.6	▽2.2	58.5	▽0.1	44.9	▽2.3	35.8	0.7	34.5	6.7
경제적 평등	24.8	▽2.8	23.3	0.5	24.0	▽0.6	24.8	▽2.8	36.3	▽2.1
경제적 불안	26.5	▽4.6	27.8	▽2.1	23.2	▽3.8	26.5	5.2	27.8	▽3.6
전반적 행복감	45.0	▽7.2	47.8	▽0.7	43.8	3.5	39.5	1.8	45.3	0.8
경제적 행복지수	44.4	▽5.5	46.1	▽0.7	41.3	1.2	37.2	0.1	43.6	3.6
경제적 행복 예측	158.0	▽8.0	163.8	6.4	146.0	6.8	130.6	0.2	128.0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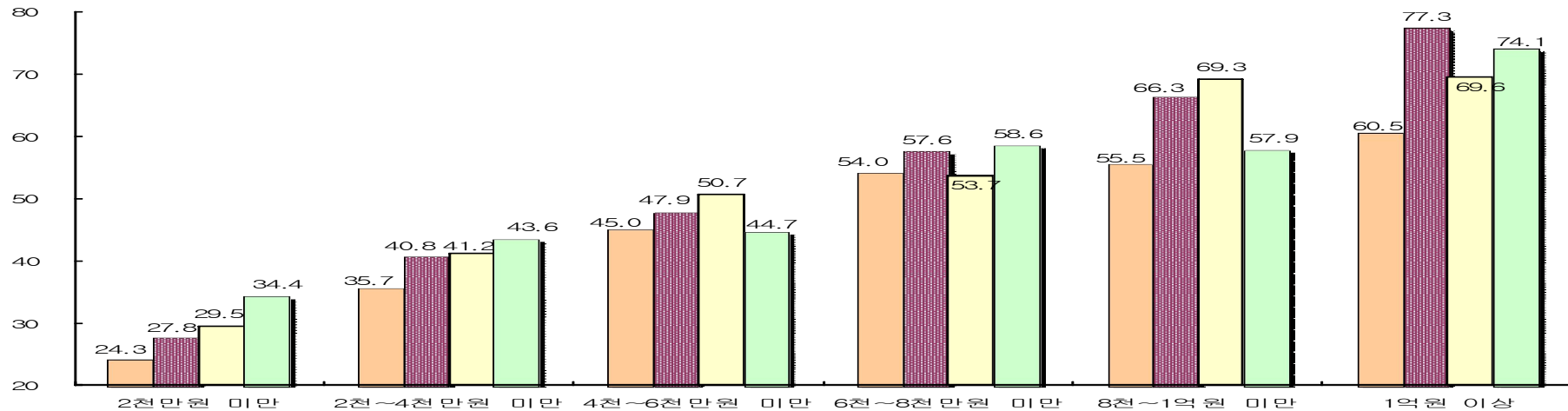
○ (소득 및 자산별) 부동산 경기 하락과 증시 조정 등으로 5억 원 이상 자산가의 행복지수 모두 하락

- 소득별로는 1억 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으며 4천만 원 미만의 저소득자의 행복감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소득별 경제적 행복지수의 등락이 상이하게 나타남. 연간 4천만 원 미만 저소득자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상승하였으나, 4~6천만 원 미만과, 8~1억 원 미만 소득자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하락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의 경우에는 연간 4~6천만 원 소득의 중저위 소득자에서만 전기대비 12.4p 하락하였고, 다른 소득 군에서는 큰 폭으로 상승함. 특히 고저위 소득자는 185.8로 전기대비 33.4p 상승하면서 미래 경제를 더욱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별 경제적 행복지수 >

	2천만원 미만		2천~4천만원 미만		4천~6천만원 미만		6천~8천만원 미만		8천~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경제적 안정	33.8	4.7	52.4	2.8	58.1	▽8.2	75.4	2.4	76.7	▽10.2	94.4	1.5
경제적 우위	44.1	7.1	51.7	2.0	59.4	▽4.2	78.1	13.4	85.0	5.2	86.1	▽3.2
경제적 발전	35.5	8.3	50.4	3.8	51.0	▽10.3	64.6	0.8	68.3	▽7.9	86.1	4.0
경제적 평등	26.5	▽3.2	24.0	▽1.7	24.9	0.3	27.3	2.0	20.0	▽7.4	40.6	4.9
경제적 불안	22.9	0.9	24.6	0.4	30.7	▽2.0	36.2	4.3	23.2	▽30.4	61.1	▽13.9
전반적 행복감	35.6	5.9	46.8	3.5	44.8	▽7.3	61.5	5.8	60.0	▽13.8	77.8	13.5
경제적 행복지수	34.4	4.9	43.6	2.4	44.7	▽6.0	58.6	4.9	57.9	▽11.4	74.1	4.5
경제적 행복 예측	130.8	13.6	150.4	7.8	155.2	▽12.4	163.0	11.2	185.8	33.4	177.8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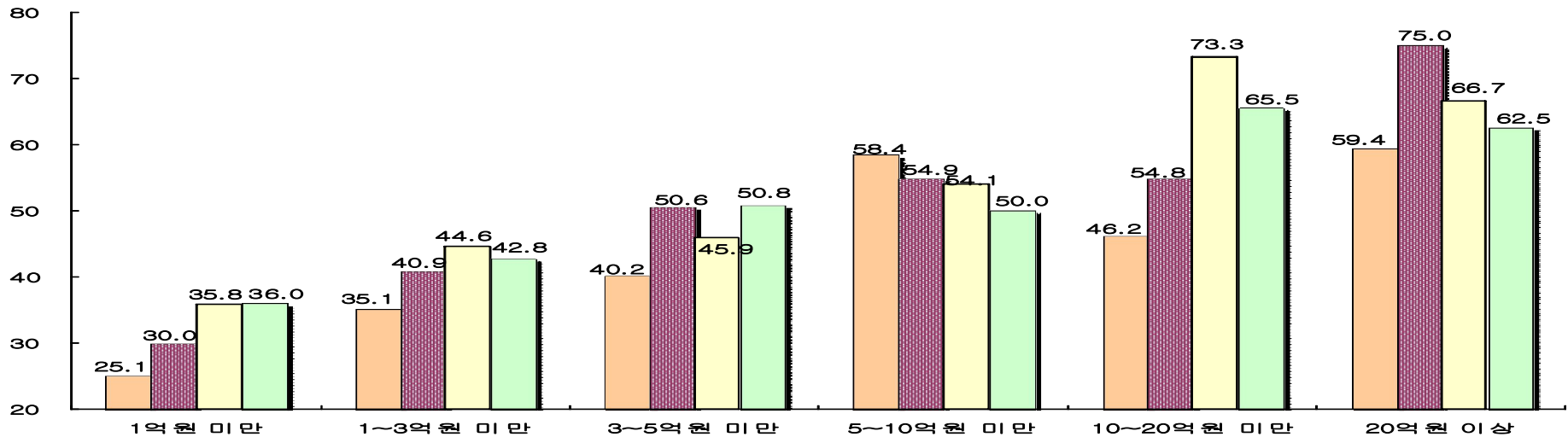


- 자산별로는 부동산 경기 하락과 주식시장 조정 등으로 5억 원 이상 자산가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모두 하락

- 자산별 경제적 행복지수는 10억 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 일수록 높게 나타났는데, 10~20억 원 미만이 65.6로 가장 높았고, 20억 원 이상도 62.5로 2위를 기록한 반면, 1억 원 미만의 소액 자산가는 36.0으로 경제적 행복지수가 가장 낮았음
- 하지만, 자산 1억 원 미만과 3~5억 원 미만의 경제적 행복지수만 각각 1.2p, 4.9p 상승에 그쳤고, 5억 원 이상의 자산가들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전기대비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도 10억 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의 경우 전기대비 각각 23.6p, 25.0p 큰 폭으로 하락하며 향후 경기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냄

< 자산별 경제적 행복지수 >

	1억원 미만		1~3억원 미만		3~5억원 미만		5~10억원 미만		10~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경제적 안정	38.1	▽4.4	52.1	▽0.7	63.4	0.5	60.6	▽5.8	76.1	▽10.8	86.1	2.8
경제적 우위	43.3	1.0	54.7	0.4	63.9	3.2	65.1	▽3.1	83.7	3.9	94.4	19.4
경제적 발전	41.1	0.3	49.0	▽1.3	52.6	1.4	54.1	▽6.6	55.4	▽12.5	61.1	▽13.9
경제적 평등	23.3	▽1.6	25.4	▽0.3	26.0	▽3.3	30.5	1.6	38.6	2.9	37.5	▽12.5
경제적 불안	21.8	▽0.9	26.7	0.7	32.1	▽2.2	33.3	▽4.9	41.3	▽17.0	36.1	▽13.9
전반적 행복감	37.4	0.7	44.0	▽3.2	55.3	10.6	51.4	▽4.3	73.9	▽7.1	66.7	0.0
경제적 행복지수	36.0	0.2	42.8	▽1.8	50.8	4.9	50.0	▽4.1	65.5	▽7.8	62.5	▽4.2
경제적 행복 예측	140.6	6.4	152.2	2.6	139.4	▽12.4	166.2	16.2	147.8	▽23.6	175.0	▽25.0



○ (학력별)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높지만 전기대비 모두 하락

-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고 중졸 이하 학력자의 경제 행복감은 경기 회복기에도 가장 낮음

- 대졸, 대학원졸 고학력자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43.9와 52.5로 전기대비 각각 2.3p, 0.2p 하락
- 반면, 2회 연속 큰 폭으로 상승했던 중졸 이하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금번 조사에서는 32.5로 변화가 없었고 고졸 학력자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41.0으로 전기대비 3.4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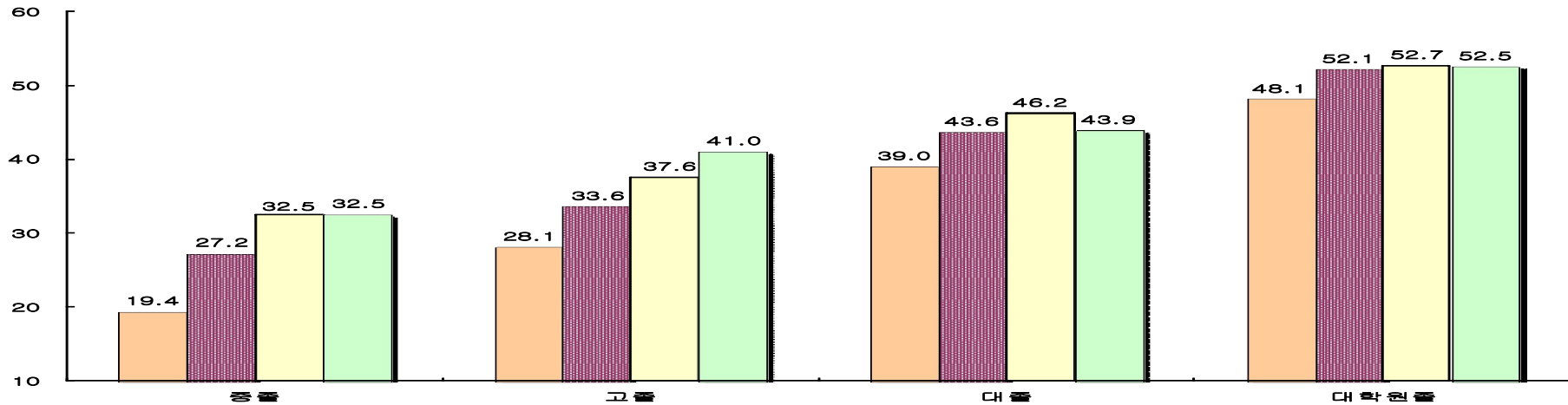
- 대학원 졸업자의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

- 대학원 졸업자의 경제적 행복지수와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가 모두 하락하였는데 이는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실업률은 하락하고 있으나 고학력자의 빈곤화 추세³⁾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 학력별 경제적 행복지수 >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경제적 안정	31.7	▽2.1	46.0	2.8	53.7	▽4.9	63.3	0.0
경제적 우위	43.0	6.5	49.9	3.2	56.3	0.0	60.7	▽3.1
경제적 발전	30.6	8.3	41.0	1.5	53.4	▽3.2	54.6	2.6
경제적 평등	27.5	▽3.6	30.2	2.5	22.5	▽2.8	20.9	▽6.2
경제적 불안	18.4	1.7	25.2	▽1.0	27.6	▽2.4	34.7	3.6
전반적 행복감	33.8	▽3.1	43.8	5.3	45.3	▽1.6	58.2	▽1.0
경제적 행복지수	32.5	0.0	41.0	3.4	43.9	▽2.3	52.5	▽0.2
경제적 행복 예측	126.6	13.0	142.5	▽3.5	153.6	5.0	137.5	▽11.5

3)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통권 395호, 2010.4월. '국내 빈곤층의 구조적 특징과 과제' P.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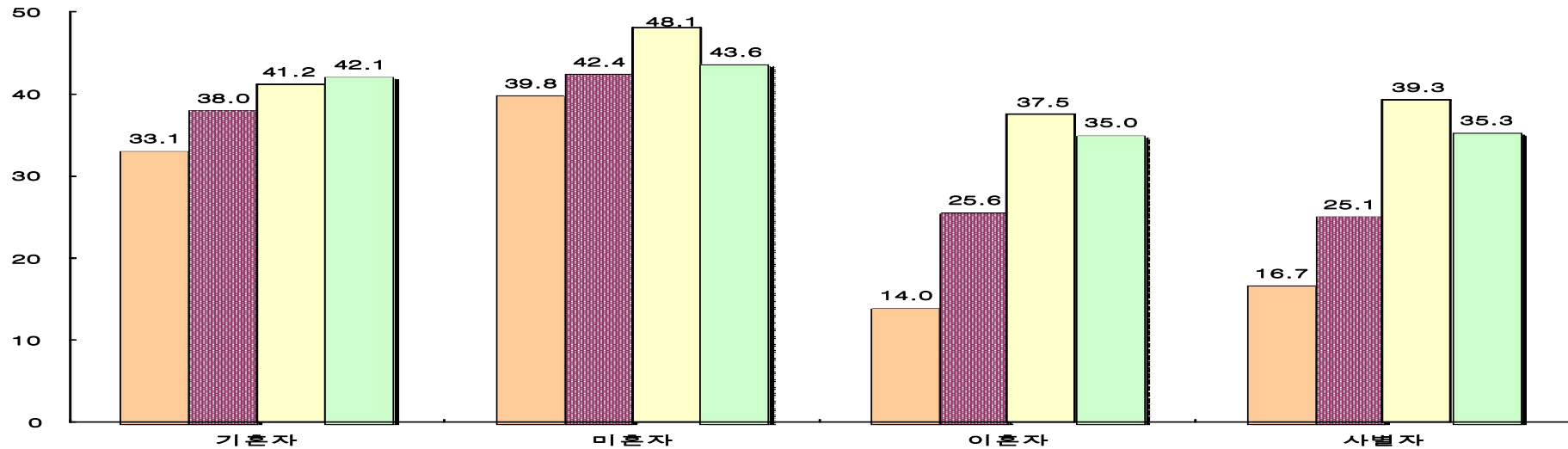
○ (혼인 상태별) 기혼자를 제외하고 미혼자, 이혼자, 사별자 모두 경제적 행복지수가 하락

- 미혼자의 경제적 행복지수와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가 모두 가장 높음

- 미혼자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43.6으로 가장 높았으나 전기대비로는 4.5p 하락한 반면, 기혼자는 42.1로 0.9p 상승하며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혼자와 사별자는 35.0, 35.3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전기대비로는 각각 2.5p, 4.0p 하락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미혼자가 152.6으로 가장 높았지만 전기대비 8.0p 하락하였고, 기혼자도 145.0을 기록하며 이혼자 및 사별자 보다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유지
 - * 이혼자의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2009년 하반기 200 이었으나 표본수가 2명이었고 금번 조사에서도 표본수가 4명으로 대표성에 한계를 지님

< 혼인상태별 경제적 행복지수 >

	기혼자		미혼자		이혼자		사별자	
경제적 안정	49.8	▽1.1	48.7	▽7.5	31.3	▽6.2	39.7	3.3
경제적 우위	53.0	2.4	53.9	▽3.1	31.3	18.8	47.1	42.2
경제적 발전	44.7	▽0.2	58.0	▽2.2	25.0	12.5	23.5	5.3
경제적 평등	25.4	▽0.9	24.4	▽4.0	50.0	37.5	23.5	▽3.8
경제적 불안	25.3	▽1.0	29.1	▽3.5	25.0	▽25.0	27.9	7.4
전반적 행복감	44.6	2.0	43.2	▽5.8	37.5	▽12.5	38.2	▽11.8
경제적 행복지수	42.1	0.9	43.6	▽4.5	35.0	▽2.5	35.3	▽4.0
경제적 행복 예측	145.0	4.8	152.6	▽8.0	100.0	▽100.0	137.5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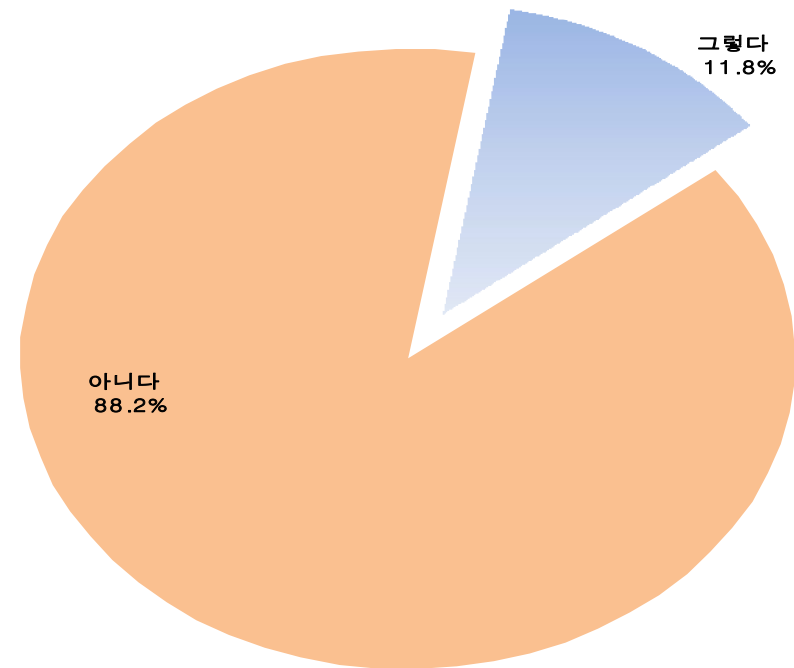


3. 기획 조사 결과

○ 최근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에서 체감 경기 회복을 느끼지 못하는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경제지표상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는데 피부로 느끼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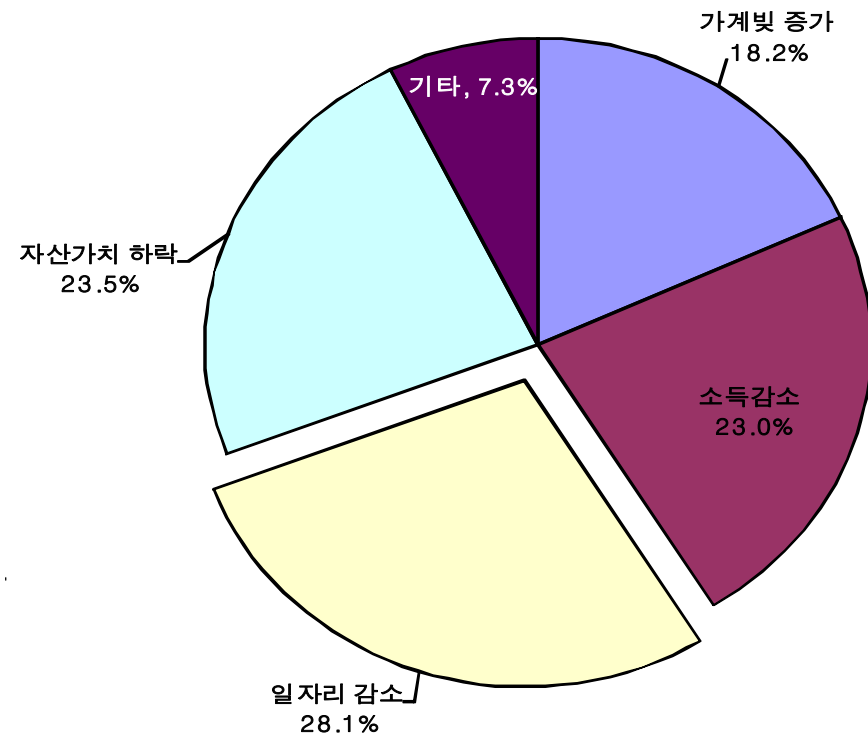
- 전체 1,029명의 응답자 중에서 908명 (88.2%)이 최근 국내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감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함
- 전체 응답자 중 121명 (11.8%)만이 실물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2010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8.1% GDP성장률과 경상수지 흑자 지속, 실업률 감소 등 국내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투자 및 내수 부진, 부동산 시장 하락, 글로벌 경제 위기 지속 등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실질적인 경기 회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자리와 소득 감소, 자산가치 하락, 가계부채 증가 등이 경기 회복 체감을 저해하는 원인임

- 경기 회복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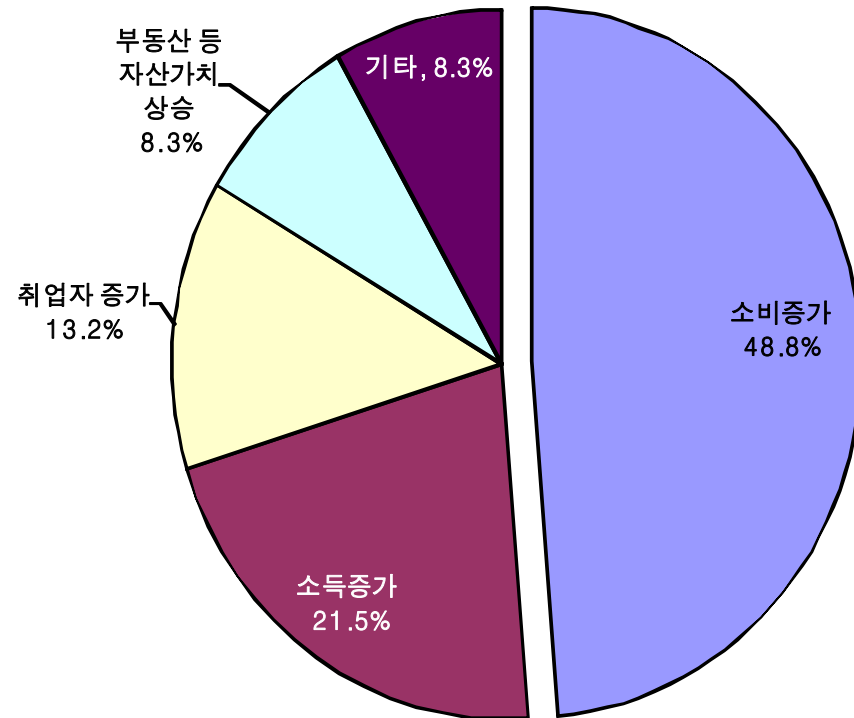
- 경기 회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한 908명 중에서 255명(28.1%)이 일자리 감소가 경기 회복감을 가장 저해하는 원인으로 응답함
- 전체 응답자 중 '자산가치 하락(23.5%)', '소득감소(23.0%)', '가계빚 증가(18.2%)', '기타(7.3%)' 순으로 경기 회복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지적됨
- 경기 회복감에 느끼거나 느끼지 못하는 원인은 일자리와 소득과 연관되어 유사하게 나타남. 최근 실업률 감소에도 일자리 창출이 일부 산업 부문에만 한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향후 자산 가치 하락과 출구전략에 따른 가계 이자부담이 증가한다면 경기 회복감은 더욱 낮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경기 회복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11.8%는 소비 증가를 주요인으로 선택

- 경기 회복감을 느낀다면 어느 부문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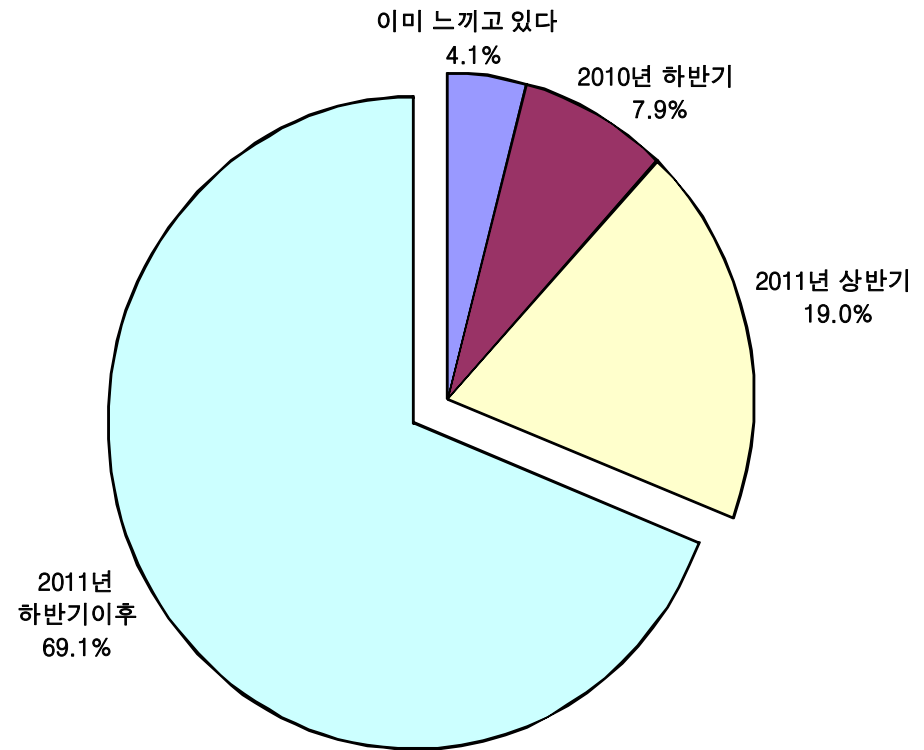
- 경기 회복감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12명의 응답자 중에서 59명(48.8%)이 소비증가, 26명 (21.5%)은 소득 증가로 인해 경기 회복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 중 '취업자 증가'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치 상승 '기타' 의견이 각각 13.2%, 8.3% 및 8.3%로 조사되어 경기 회복에 따른 취업자 증가가 경기 회복감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 2009년 경기 침체로 연간 7만 개 감소했던 일자리가 2010년 들어 플러스로 전환되었고 실업률도 지난 1월 5.0%에서 4월 3.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에 따른 소득의 증가와 소비 증가가 경기 회복감을 느끼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11년 하반기 이후에나 우리나라 경기가 실질적인 회복을 보일 것이라고는 보수적인 전망이 우세

- 언제쯤 체감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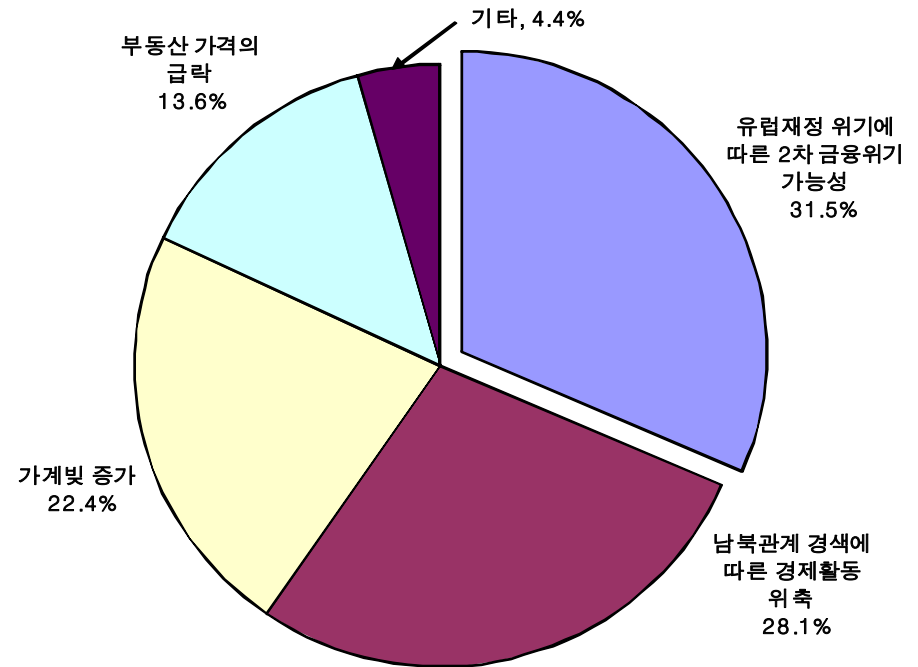
- 전체 955명의 응답자 중에서 660명 (69.1%)이 2011년 하반기 이후에나 우리 경제가 나아져 가계의 경제 상황도 호전될 수 있을 것이라 응답함
- 전체 응답자 중 '2011년 상반기', '2010년 하반기' 및 이미 느끼고 있다'은 각각 19.0%, 7.9% 및 4.1%로 이들은 2011년 되어야 우리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
- 유로존 재정위기 등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주요국 대비 한국 경제는 빠르게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최근 주요국들의 더블딥 가능성과 국내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안감 등으로 본격적인 국내 경제 회복은 2011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바라보는 보수적인 시각이 우세함



○ 유럽 재정위기, 남북관계 경색이 2010년 하반기 국내경기 회복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2010년 하반기 국내경기 회복의 불안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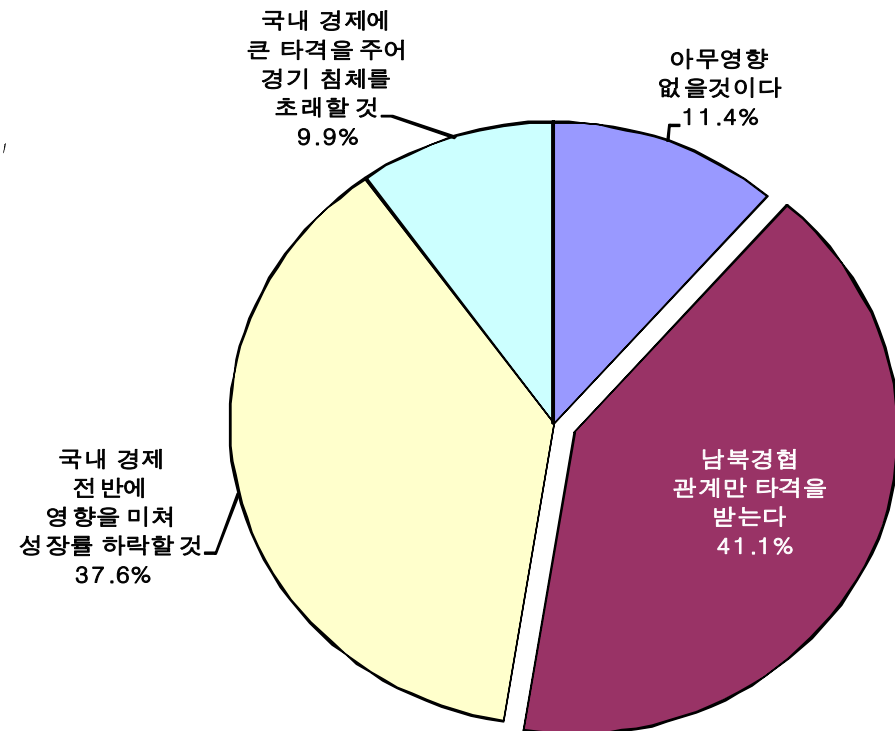
- 전체 1,031명의 응답자 중에서 325명 (31.5%)이 하반기 국내경기 회복의 불안요인으로 유럽재정 위기에 따른 2차 금융위기 가능성을 꼽았고, 290명 (28.1%)은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 중 '가계빚 증가',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치 급락' 및 '기타'은 각각 22.4%, 13.6% 및 4.4%로 하반기 국내경기 불안요인으로 판단함
- 2010년 GDP 성장률이 5% 후반으로 빠른 경제 회복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약 90%가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약 70%는 2011년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경기가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남북관계 경색이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는 국민이 약 90%에 달함

- 천안암 사건 이후 남북 간 긴장상태가 고조된다면 국내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고 질문한 결과,

- 전체 1,021명의 응답자 중에서 420명 (41.1%)이 남북 간 긴장상태가 남북경협 관계만 타격을 입힐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485명(47.5%)이 남북 간 긴장상태가 고조될 경우 국내 경제 성장률 하락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가중될 것으로 응답함
- 반면, 전체 응답자 중 '아무 영향 없을 것이다'는 11.4%에 그침
- 우리 국민들은 천안암 사건 이후 지속되고 있는 남북 관계의 경색이 남북 경협에 부정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쳐 경제 회복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경제적 행복지수의 종합적 시사점

○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 2010년 6월말 현재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충남 지역에 거주하는 대졸 이상 학력의 30대 여성이면서 고소득의 전문직이나 주부인 것으로 추정

· 이들의 현재 경제적인 행복과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모두 6개월 전에 비해 상승하여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표출

- 한편, 경제적으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산과 소득도 낮은 40~50대 이상의 남자로서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혼자 사는 무직자로 추정됨

· 취약 계층으로 구분되는 이들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전기대비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전반적인 미래 경제에 대한 기대감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08년 상반기부터 2회 연속 상승했던 경제적 행복지수가 유로존 재정위기와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국민들의 빠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소폭 하락하였으나, 미래 경제 예측 지수는 상승세를 지속하며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회 연속 상승했던 경제적 행복지수가 소폭 하락

- 국내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경제적 행복지수는 2008년 하반기 33.6에서 2009년 하반기에는 42.5로 2회 연속 상승하였으나 2010년 상반기에는 42.2로 전반기 조사보다 0.3p 하락
- 이는 2010년 초부터 대두된 두바이 경제위기, 유로존 재정위기와 아시아 시장의 자산버블 가능성 고조, 국내 외환시장의 환율 불안, 천안함 사건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국내 경기 회복지연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은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국내 실물경제 지표의 개선으로 미래에도 경제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표면화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감
- 청년층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 제고, 서민 중산층에 대한 배려와 부동산 시장 연착륙 대책,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이 체감경기 회복이 가장 시급한 정책적 과제임
- 최근 실물경제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부족, 소득 감소, 자산가치 하락 및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가계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판단됨
 - 국민의 약 90%가 경제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기 회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2011년 하반기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함
- 이에, 경제적으로 행복해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고가 필요함

- 첫째, 고학력 청년층의 행복감이 크게 떨어진 것을 감안하여 청년층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
 - 청년고용 비중이 높은 디지털 콘텐츠 산업 등 신성장 분야의 새로운 사업 기회와 신규 일자리 창출력을 높여야 함
- 둘째, 지표 경기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함에 따라 서민·중산층에 대한 배려와 부동산 시장 연착륙 대책이 필요
 - 특히, 출구전략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상환 능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
- 셋째, 강원 지역의 행복감 하락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여 인도적·비정치적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국제공조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 넷째, 공무원의 행복감 하락을 감안하여 최근 발표한 「내년 공무원 급여 인상」 등의 조치는 시의 적절한 것으로 판단

□ 총	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작	성	:	조 호 정	선 임 연구원	(2072-6217, chjss@hri.co.kr)
			김 동 열	연구위원	(2072-6213, dykim@hri.co.kr)
			홍 유 립	전문연구원	(2072-6243, ylhong@hri.co.kr)